

후보별 주거 공약

이재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본주택(임기 내 100만 호 공급 목표) 청년 우선 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기임대형 • 토지임대부 분양형 ●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분양형 • 누구나집형 • 지분적립형 • 이익공유형 • 공유형 ●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 시 금융 제한 완화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● 임대 주택 거주 청년 월세 지원
윤석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청년월가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년 이내 총 30만 호 공급 목표(85㎡ 이하) • 분양가 20% 소지 시 구입 가능, 80%는 장기 저리로 금융지원 • 투기 차단을 위한 토지환매부 방식 • 소득과 재산이 적고, 장기 무주택 + 유자녀일 경우 가점 ● 역세권 첫집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 호 • 시중 가격 50~70% • 공공재건축 용적률 300%에서 500%로 완화 ● 청년층·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80%로 인상 ● 현행 30세인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
심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공임대주택 20% 확대 ●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무보증금으로 공급 ● 전·월세 자금 무이자 대출 ●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● 부모와 독립하여 사는 20대 청년 주거급여 확대 적용: 중위소득 45% 이하 → 60% 이하 ● 주거복지 정책 기준인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현행 14㎡ → 25㎡ 확대
안철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공유지 활용 • '청년캠퍼스'로 공급 ●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실수요자인 청년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, 장기 무주택자 대상 • LTV 80% +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+ 15년 거치 30년 상환 ● 청년의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 폐지

공약 평가

<긍정적 평가>

- 청년 월세 지원 - 이재명, 심상정
월세 지원 공약은 청년들 초기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
- 주거급여 - 윤석열, 심상정
윤석열 후보 -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식, 심상정 후보 -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방식.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기준 연령을 낮춘다면 주거빈곤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. 소득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.
- 주거복지 정책 기준 확대 - 심상정
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치, 이에 미달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분류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이 됨.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인 14㎡는 영국(38㎡), 일본(25㎡) 등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작음.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이라는 장소가 다양한 생활 양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되었기에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. 청년층의 주거환경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심상정 후보 주거 정책 높이 평가.

<부정적 평가>

- 안철수 후보 주거 공약 비판: 주택 공급 외 공약 전무, '청년캠퍼스' 공약 과연 필요한가
안철수 후보의 청년 주거 관련 공약은 너무 주택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. '전세 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폐지' 공약 - 금융위원회에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공약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. 그 외 공약 임대주택 건설, 대출 관련 내용이지 청년 주거환경이나 주거복지 측면은 빈약하다는 평가.
특히 안 후보가 내세운 '청년캠퍼스' 공약 반드시 필요한 공약인지에 대한 의문.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, 창업을 위한 공간 설계... 청년 주거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 공간과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 공간을 더 마련하는 것이 정말 청년층을 위하는 공약이라고 생각.